



범고래 '케이코'가 그가 잡힌 아이슬란드 바다로 가기에 앞서 1998년 미국 오리건주 뉴포트의 오리건 코스트 아쿠아리움에서 쉬고 있다. 케이코는 영화 <프리윌리>에 출연하면서 그가 살던 멕시코 수족관의 열악한 사실이 알려졌다, 세계적인 야생방사 운동이 벌어져 이곳으로 구조돼 옮겨왔다.
출처: 위키피디아 코먼스

야생에서 무려 5년, 가족만 만났더라면...

과학자에게 듣는 '케이코의 귀향'

“안녕, 케이코.”

1998년 9월9일 미국 오리건주 뉴포트의 오리건 코스트 아쿠아리움 앞 수백명이 범고래 '케이코'와 마지막 인사를 나누기 위해 몰려들었다. 공항에는 미국 공군이 지원한 C-17 수송기가 기다리고 있었다. 드디어 케이코가 고향인 아이슬란드의 바다로 돌아가는 것이다.

수컷인 케이코는 두 살 때인 1977~78년께 아이슬란드 바다에서 잡혀 캐나다와 멕시코의 수족관을 전전했다. 1995년 영화 <프리윌리>에 캐스팅돼 유명해졌지만, 멕시코 수족관의 열악한 시설이 알려지면서 세계적인 야생방사 운동이 벌어졌다. 수백만명의 어린이들이 성금을 보내는 등 이내 78억원(700만달러)이 쌓였다. 결국 멕시코의 수족관은 손을 들었고 케이코는 오리건 아쿠아리움에 있다가 이날 최종 방사를 위해 먼 길을 떠나게 된 것이다.

7시간 비행 끝에 케이코는 아이슬란드 남부의 섬 베스트만 제도(Vestmannaeyjar)에 도착했다. 이미 바다엔 길이 76m, 너비 30m의 야생 방사장이 기다리고 있었다. 케이코는 죽은 먹이를 줄이고 인간 접근을 차단하는 등 긴 야생 적응 훈련에 돌입했다.

미국 동물보호단체 '휴메인 소사이어티'는 2002년 케이코 프로젝트를 넘겨받았다. 방사 작업에 참여한 이 단체 수석과학자인 미국의 나오미 로즈 박사가 말했다. “케이코는 아침에 방사장을 나가 야생 범고래 무리와 어울리고 저녁이 돼서야 돌아왔어요. 7월 한달은 거의 매일 그랬어요.”

2002년 8월5일 케이코는 다른 고래들을 따라 동쪽으로 헤엄치기 시작했다. 케이코의 등

세계 돌고래 야생방사 사례



영화 '프리윌리'의 주인공

세계적 야생방사 운동 끝에 멕시코의 아쿠아리움을 떠나 아이슬란드로 돌아간 뒤...

에는 위성위치추적장치(GPS)가 붙어 있었다. 연구자들은 조마조마하며 케이코의 도전을 관찰했다. 이 작업에 컨설턴트로 참여한 뉴질랜드 과학자 폴 스톱 박사가 말했다. “케이코는 북대서양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아침마다 연구자들은 케이코의 위치를 확인하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어요.”

케이코는 1000km를 헤엄쳐 8월31일 노르웨이에 도착했다. 케이코가 따르던 범고래 무리와는 헤어진 것 같았다. “체중도 잃지 않고 건 강했어요. 성공적으로 먹이 사냥을 했다는 거죠.”(나오미 로즈)

야생 적응 훈련팀은 노르웨이에 급파됐다.

하지만 케이코는 이곳에서 야생방사장 없이 자유롭게 헤엄쳐 다녔다. 구경 인파가 몰려 관광화되는 바람에 그동안 사람 접촉을 차단한 게 헛수고가 되기도 했다.

1년 넘게 피오르 바다를 헤엄치던 케이코는 2003년 12월 갑자기 먹기를 중단하더니 무기력증에 빠졌다. 얼마 안 돼 케이코는 세상을 떠났다. 사인은 폐렴이었다.

“케이코는 힘든 삶을 살았어요. 돌고래로서는 힘든 비행기를 네 번이나 탔고요. 하지만 변화에 도전하면서 26살까지 살았어요. 그 정도면 야생 범고래의 평균 수명이지만 수족관 개체로선 오래 산 거예요.”(나오미 로즈)

최종적으로 야생 무리에 섞이지 못했기 때문에 케이코의 도전은 실패했다고 보는 사람도 있다. 로즈 박사는 이런 시각에 반대한다. “1993년 멕시코 수족관에서 케이코를 봤을 때 매우 아팠고 무기력했지만, 아이슬란드에서의 케이코는 강건하고 활동적이었어요. 케이코가 야생에서 5년을 살았어요. 우리는 만족합니다.”

스톱 박사는 케이코가 자신을 낳은 가족을 만나지 못한 것에 아쉬워했다. “케이코 프로젝트에서 유일하게 달성하지 못한 지점이죠. 케이코가 가족과 재회했다면 야생 무리에 합류해 완전히 적응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럼 국내 남방큰돌고래들이 야생방사됐을 경우 가족을 만날 수 있을까? 답은 충분히 긍정적이다. 제주 남방큰돌고래는 114마리로 이뤄진 하나의 집단이다. 제주도 연안을 일정하게 돌며, 많을 때는 70~80마리가 한데 모이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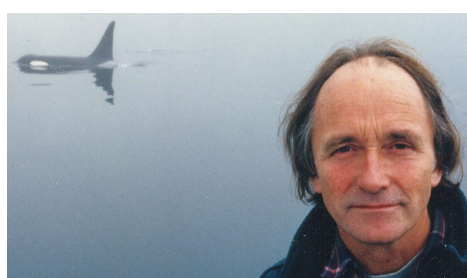
“수족관에서 태어난 돌고래는 야생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쩔때 생존법을 배울 수 없게 되기도 몰라요. 하지만 이들도 바다의 야생방사장에서 살아야 합니다. 남방큰돌고래는 작는데

다 적게 먹어 범고래보다 훨씬 방사비용이 적게 들 거예요.”(나오미 로즈)

“한 가지 경험을 이야기할게요. 북서태평양 연안에서 스프링거라는 범고래 한 마리가 무리에서 떨어져 고아가 된 적이 있어요. 우리는 그의 가족들이 사는 곳을 찾아 야생방사장을 설치했어요. 가족의 목소리가 들렸고 스프링거는 다음날 방류됐죠. 지금까지 11년 동안 가족과 함께 살고 있어요.”(폴 스톱)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이 글은 케이코 프로젝트에 참여한 두 과학자와의 이메일 인터뷰로 작성했습니다.



동물보호단체 휴메인 소사이어티의 수석과학자인 나오미 로즈(49)는 국제포경위원회(WC)의 과학위원회 위원이며 수족관 돌고래의 동물복지와 해양 생태계를 연구하고 있다.(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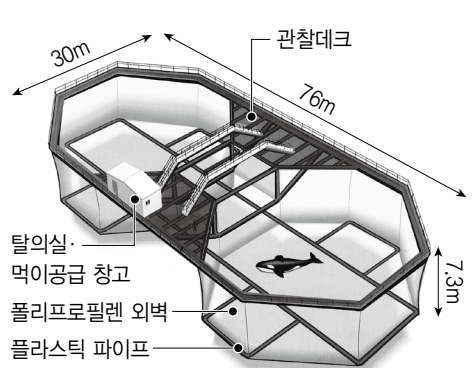
캐나다 밴쿠버 아쿠아리움의 해양포유류학자였던 폴 스톱(73)은 고래가 수족관에 갇혀 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 이곳을 나와 1972년 밴쿠버 북쪽 북서태평양 헨스 섬에 연구소 '오르카랩'을 설치해 범고래를 관찰하고 있다.

남종영 기자

고향에 방사장 설치... 돈은 누가 내지?

케이코 야생방사장은 어떻게 생겼나

위치: 아이슬란드 베스트만 제도 알바다
설치비: 3억9000만원(35만달러)



세계적인 해양포유류학자인 케네스 벨컴이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정리한 기록을 보면, 고래 야생방사 사례는 큰돌고래·남방큰돌고래만 60차례, 범고래 21차례 등 90여차례에 이른다. 짧게는 며칠에서 길게는 10년 이상 감금된 개체도 방사됐다.

하지만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꼽히는 큰돌고래 미사와 예코 그리고 폭발적인 관심을 불러온 범고래 케이코처럼 방사 과정이 과학적으로 진행된 경우는 드물다. 특히 1990년대까지만 해도 위성위치추적장치(GPS) 등 장비가 발달하지 않아 방사된 고래가 야생 무리에 합

류했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지금은 과학적인 야생방사 프로그램이 표준이 됐다. 터키에서 '돌고래와 수영하기' 프로그램에 이용되던 톱과 미사는 영국의 동물원 감시단체 '본프리에' 구조돼 2010년부터 예게해에서 지름 30m의 가두리에서 야생 적응 훈련을 받고 있다. 6년 가까이 수족관에 장기 수용된 이들이어서, 과학자들은 이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

야생방사 성공률을 높이려면 방사될 바다 한가운데에 가두리(야생방사장)를 만들어 돌고래가 바다 환경에 적응하도록 해야 한다. 가두리는 돌고래가 잡혀온 고향에 설치하는 게 원칙이다. 원래 무리와 만나 어울릴 수 있을 때 문이다. 큰돌고래 미시와 실버, 로키는 각각 다른 곳에서 잡혀 다른 수족관에서 일했는데,

1991년 야생 적응 과정 없이 카리브해의 영국령 섬나라 터크스 케이커스 제도에 한데 모아 방사했다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야생 적응 훈련은 수족관 적응 과정과 반대로 하면 된다. 야생에서 잡혀온 돌고래가 수족관에서 맨 처음 죽은 생선을 먹는 훈련을 한다면, 반대로 야생방사 과정에선 산 생선에 익숙해지는 연습부터 시작한다. 야생방사일이 가까울수록 사람과의 접촉도 점진적으로 줄여야 한다.

수족관에 오래 있던 돌고래일수록 야생 적응 기간은 오래 걸린다. 2년 동안 수족관에서 수용된 미사와 예코의 경우 가두리에서 25일 있다가 야생 적응에 성공했다. 먹이는 아홉달 전부터 점진적으로 산 생선 비율을 높였다.

남방큰돌고래의 야생방사에 대해서 고래연구소도 이런 적응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

다. 남방큰돌고래는 제주 연안 1km 안을 계속 돌므로, 이 구간 중 하나에 야생방사장을 설치하면 된다. 돌고래들은 이때부터 야생 무리와 소통과 교감을 나누기 시작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문제는 야생방사 비용을 누가 부담하고 방사장을 누가 관리할지 여부다. 검찰 관계자는 “야생방사로 이어지는 물수형을 구형할 경우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환경단체인 핫핑크돌핀스와 동물자유연대는 퍼시픽랜드가 불법을 저질러 영리를 획득한 만큼 야생방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서울대 공원에 있는 제돌이 등 세 마리에 대해서 서울시가 나서서 야생방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종영 기자